

# 신라의 미의식 연구

김소희 · 채금석<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Research of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Silla Dynasty

So Hee Kim · Keum Seok Cha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12년 10월 18일), 수정일(2013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2013년 6월 6일)

### Abstract

The Silla Dynasty was an open society and was an independent, creative, brilliant culture built on diverse cultures and values. Transforming from the Silla Dynasty to the Unified Silla, it unified the culture of the Three Kingdoms into one. It also displayed unique clothes that adapted new foreign elements into rich clothes forms unlike previous styles. This study first classifie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Silla Dynasty by exploring the beauty of the Silla Dynasty realized through artifacts, books, and records in the Silla Dynasty and defines the each characteristic of the aesthetic consciousness. Second, it highlights the independency of Korean beauty through an investigation of how the aesthetic consciousness form appeared through these new appearances i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Dynasty cloth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Silla Dynasty can be inferred through Silla Dynasty artifacts, literature, sensuous beauty, and records that were classified into random natural beauty, humorous beauty, and decorative technical beauty. The Silla Dynasty aesthetic consciousness and aesthetic consciousness appeared in Silla Dynasty clothes based on the aesthetics of authenticity that created the honest and simple aesthetic moving of the early natural aesthetic sense of the Silla Dynasty. Silla Dynasty clothes are found to have transformed into an ornamental aesthetic consciousness of a sensual and decorative aesthetic consciousness in a Unified Silla.

**Key words:** Silla, Unified Silla, Shilla's costume, Silla's beauty,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신라, 통일신라, 신라 복식, 신라의 미, 신라의 미의식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복식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 외에도 비물질적인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나

타내는 심미적 표현수단으로 사상, 종교, 정서, 문화, 미적 관념과 같은 정신적인 내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여 하나의 패션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고대복식을 다룸에 있어 대부분 형태, 소재, 색상과 같은 조형적 특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면에 깔린 미의식과 같은 내재적 요인이 간과되어 왔다. 미의식(美意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재한 보편적인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를 이해하고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의 감각과 경험을 말한다(Chae, 2004a). 각국의 전통 미의식은 각 시대별 복식을 특별하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cks9312@sookmyung.ac.kr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숙명여대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게 만드는 차별성을 부여하며 자국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복식디자인의 보고이다.

고대 삼국 중 하나인 신라는 열린사회로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해로와 육로를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세계무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여 고유성 위에 국제적 보편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이면서 창조적인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통일신라로 이어지면서 삼국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였고 예술 분야 뿐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양식의 외래 요소를 수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보다 풍부한 양식을 만들어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라 시대 유물, 고서 기록, 선행연구 등을 통해 그에 구현된 신라미를 탐구하여 신라의 미의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미의식의 특성을 규명한다. 2. 이를 통해 나타난 미의식 유형이 신라 복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한국적 미의 독자성을 조명하여 복식디자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신라의 미의식을 규명하는 데 있어 고서 기록, 선행연구논문, 미학, 철학, 예술학, 고고학, 의류학 관련 서적 등의 문헌 자료와 토우, 벽화와 같은 신라 및 주변국의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B.C. 57년~A.D. 676년까지의 신라와 삼국 통일 후 A.D. 676년~935년까지의 통일신라까지로 한정하며 그 시기 신라와 교류하였던 주변국의 문화와 복식으로 한정한다.

## II. 신라의 미의식

###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신라의 미(美)

그간 신라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는 공예, 미술, 조각, 토우, 신화, 향가 등을 통해 선행되었고, 신라 복식을 중심으로 한 미의식 연구는 전무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신라의 미의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Min(1988)은 신라 유물의 조형미와 신화에 나타난 신라의 미의식을 살핀 결과 자유분방성, 해학미, 덕(德)의 미로 결론지었다. Chong(1998)은 신라 조각을 통해 그 미의식을 살폈으며 사색적인 정조, 친근한 인간미, 위엄

미와 관능미, 유려한 장식, 통일 속의 다양함, 평면성과 장식성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Sim(2006)은 신라 토우를 통한 미의식의 특징을 즉흥적 해학미, 파격적 성애미, 무기교적 고졸미, 생동적 운동미로 언급하고 있다. Chong(2006)은 신라 미술의 미의식으로 자연미, 질박미, 토속미, 휴머니즘적 미의식, 국제적 미의식을, Kim(2008)은 향가에 나타난 아름다움으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과 선의 개념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매혹 등으로 신라의 미를 표현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신라의 미에 관한 용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 2. 신라 미의식 유형

이상 선행연구에서 신라의 대표적 미의식으로 언급된 용어 가운데 가장 중복되는 특징들을 선별, 유사 미의식의 개념적 용어들로 분류하여 크게 무작위적 자연미, 해학미, 염의 미, 장식적 기교미로 유형화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1) 무작위적 자연미

신라를 비롯한 우리 미술의 특징으로 ‘무기교의 기교’, ‘구수한 큰 맛’, ‘무관심성’, ‘무계획의 계획’, ‘비정제성’, ‘자연에의 순응’ 등을 들 수 있는데 고유성을 비롯한 선학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신라 미술의 특징은 질박하고 투박하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자연의 미’로 이는 외래적인 요소인 북방 미술이나 불교 미술과 구분되는 신라 고유의 특색이다(Chong, 2006).

J. H. Kim(2009)에 따르면 자연미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지만 그 미적 요소로 곧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라인들이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자연을 숭상하는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미의 자연적 취향은 신라 미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신라는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자연과 친숙했으며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소박한 토속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 규칙성이 없는 것을 무작위라 말하며 무작위적 자연미란 자연성을 근원으로 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자연 그대로의 미라 할 수 있다(J. H. Kim, 2009).

무작위적 자연미는 신라의 건국 신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신화는 고대인의 생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징표로 철학·종교·도덕·예술 등의 정신적

Table 1. Beauty of Silla Dynasty shown in previous work

Author	Study	Field	Aesthetic category
Min (1988)	Some Remarks on the ancient Korean Aesthetic Thoughts	Molding Myth	Liberal nature Humorous beauty The beauty of virtue
Chong (1998)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Sculpture	Sculpture	Humane and friendly Tight Elasticity Elegant decor Sensuality The harmony of natural beauty and artificial beauty
Sim (2006)	A Study on the symbolism and formative character of the Clay Doll of the Silla Dynasty	Clay	Improvised humorous beauty Unconventional sexual beauty Unadorned beauty
Chong (2006)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Silla Art	Art	Natural beauty Beauty without embellishment modest Indigenous beauty Aesthetic sense of humanism International Aesthetic sense
Kim (2008)	Beauty and an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as Hyangga creative motivation	Hyangga	Fascination for physical beauty Fascination for the beauty of the goodness

문화를 내포하여 전체적인 삶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예술의 기초를 이룬다. 신라의 건국 신화인 난생(卵生) 신화에서 난형(卵形)은 원 가운데서도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저절로 친근감을 갖게 해주는 형태로 기하학적 동심원이나 타원형과는 다른 자연이 낳은 형태이며 생명성을 지닌 유기적인 형태이다(Min, 1988). 난형과 가장 닮은 식물적 형상은 소박하고 자연적인 둥근 형태의 박으로, 그 알의 모양이 박과 같아서 성을 박(朴)이라 하였다고 한 점에서 꾸밈없는 자연적인 미감을 바탕으로 한 신라인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신화에 등장하는 백색(白色)에서도 자연적 미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 신화에 흰 말[白馬]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흰색은 자연의 하늘의 색을 상징하며 진실을 호소하고 추악함을 모르며 밝음을 대표하는 색으로 사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이다(Min, 1988).

신화 외에도 여러 유물들의 형태와 문양에서 무작위적 자연미가 나타난다. 문양은 미적인 추구와 더불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은 시대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Kim, 2004). 하나의 문양이 성립하는 과정과 그 발생은 종교 혹은 사상적인 의미를 가지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본래의 문양이 지니는 의미는 퇴색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더 강해진다(Kim, 1995).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다양한 문양들을 창조해 왔다(Heo,

2010). 신라의 유물들에 나타나는 문양들 역시 대체로 자연에서 온 것들로 <Fig. 1>의 연꽃무늬수막새를 비롯한 여러 화문(花紋), 개와 돼지 토우가 달린 토기<Fig. 2>나 거북이가 달린 토기<Fig. 3>, 오리 모양 토기<Fig. 4> 등 대부분의 유물들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한다.

또한 신라의 토우는 불교 전래 이전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등 원시 신앙적 생활 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삶과 밀착된 토속적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다산과 풍요 및 주술적인 의미, 영속적인 세계관 등의 소박한 정서와 생활상을 자연스럽고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H. A. Kim, 2009). 신라 토우의 자연스러운 형태는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특징과 의미에 중점을 둔다. 과장과 생략기법으로 대충 만들어진 모습은 자연스럽다 못해 토속적이며 이는 디트리히 제켈이 한국미로 논한 ‘기술적인 완벽함에 대한 무관심’과도 통한다. 이와 같이 신라인들은 기교를 배제한 과감한 생략을 통한 단순미, 자유분방한 표현을 통해 질박한 자연미와 무기교적, 무작위적인 고졸미(古拙美)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미의식에서 느낄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적이고 토속적이며 질박한 표현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중요시한 신라인들의 휴머니즘적 인 고유 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해학미

해학미란 익살스러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말



**Fig. 1. Roof-End Tile, Hwangnyongsa, Gyeongju, Silla Dynasty.**  
From Roof-End Tile. (n.d.).  
<http://gyeongju.museum.go.kr>



**Fig. 2. Earthenware I, Gyeongju, 5C.**  
From Ahn. (2009). p. 19.



**Fig. 3. Earthenware II, Gyeongju, 5C.**  
From Ahn. (2009). p. 168.



**Fig. 4. Duck-Shaped Kettle, Gyo-dong, Gyeongju, 3C.**  
From Duck-Shaped Kettle. (n.d.).  
<http://gyeongju.museum.go.kr>

하는데 해학적인 것이란 ‘보고 웃고 싶은 감정’을 말하며 대체로 외부로부터 받은 정취나 감동으로 지적이며 밝고 화사한 정감을 일컫는다(Chae, 2004b).

신라인은 시가와 음악을 즐기고 미술과 공예를 좋아하여 예술적이고 풍류적인 문화를 이루었으며 신라의 미술, 공예 및 문학에서는 슬픈 표정은 찾아보기 힘들며 흥겹고 즐거운 해학이 가득하다.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 혁거세 신화에서 해학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혁거세의 부인 알영의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지만, 입술이 닭의 부리 같이 월성의 북천으로 데려가 썩었더니, 그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대목은 읽는 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한다.

또한 신라인들의 작품을 보면 은근한 미소를 짓게 하는 해학적 요소가 다분하며 신라 토우는 장식적이라기 보다 익살, 친진, 낙천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해학미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듯하며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Fig. 5>의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모습, <Fig. 6>

의 남자의 성기를 강조한 토우, <Fig. 7>의 성적 특징이 강조된 여자상에서는 토우의 행동과 표정에 혼(魂)이 담긴 듯한 유머가 느껴진다. 노인상<Fig. 8>이나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인물상<Fig. 9>의 표정과 동작들은 신명을 느끼게 한다.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의 치미<Fig. 10>에서도 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해학적 요소가 보인다.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장식하는 치미가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해학적으로 표현된 것<Fig. 11>은 신라인의 미적 취향으로 국제적인 불교 미술을 받아들여 사찰을 지으면서도 고유의 해학적 미의식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소면와당<Fig. 12>의 빙긋 웃는 신라인의 미소는 낙천적인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단순하고 간략화된 형태 안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하는 해학이 들어 있다(Yoon, 2001). 안동 조탑동 오층전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탑(傳塔)으로 부처님



**Fig. 5. Earthenware with clay icons I, Gyeongju, 5C.**  
From Earthenware with clay icons. (n.d.).  
<http://gyeongju.museum.go.kr>



**Fig. 6. Clay figurines, Gyeongju, 5C.**  
From Ahn. (2009). p. 38.



**Fig. 7. Clay figurine, Gyeongju, 5C.**  
From The Museum of Everyday Life Compilation Committee. (2001). p. 61.



**Fig. 8. Old Man's Face Clay figurine, Gyeongju, 5C.**  
From The Museum of Everyday Life Compilation Committee. (2001). p. 60.



**Fig. 9. Earthenware with clay icons II, Gyeongju, 5C.**  
From The Museum of Everyday Life Compilation Committee. (2001). p. 60.



**Fig. 10. Ridge-end Ornament Tile, Hwangnyongsa Temple site, Gyeongju, 7C.**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p. 77.



**Fig. 11. Ridge-end Ornament Tile, Hwangnyongsa Temple site, Gyeongju, Silla Dynasty.**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p. 77.



**Fig. 12. Roof-end Tile with Human Face, Yeongmyosa Temple Site, Gyeongju, Silla Dynasty.**  
From Roof-end Tile with Human Face. (n.d.). <http://gyeongju.museum.go.kr>



**Fig. 13. Jotap-dong Pagoda, Andong, 8C.**  
From Jotap-dong Pagoda. (n.d.). <http://terms.naver.com>

의 사리를 모신 탑을 지키는 좌우의 인왕상<Fig. 13>은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으로 강건하고 위압적인 상이 아니라 귀여운 모습으로 사리를 지킨다는 것은 신라인의 해학이자 역설이다(Chong, 2001).

### 3) 염(艷)의 미(美)

염(艷)의 미란 Ogawa(1997/1999)에 따르면 꾸밈의 미로서 관능미와 감각미를 표현한 것으로 자연의 풍물이나 기물에 관해 윤기 나는 색채감이 넘치는 모양으로 인사(人事)에 관해서는 연애적 정서를 담은 품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염은 또한 ‘감출수록 더욱 아름다운’ 은폐의 미로서 관능적·감각적 표현과 연애적 정서로 수줍고 절제되면서 내적으로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은근미가 내재되어 있다(Chae, 2004b).

염은 사전적 의미로 얼굴과 용모가 매우 아리따다는 뜻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염의 미는 농염(濃艷)이나 염려(艷麗), 우미(優美)와 같은 의미로 신라의 문학 및 토용, 복식 등에서 염의 미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해지는 우리 서정시의 원류에 해당하는 신라의 향가에 등장하는 염미(艷美), 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과격적인 사랑에의 표현, 통일신라 여자 토용의 관능적인 자태 등은 신체적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신라의 염의 미의식이 잘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Chong(1998)이 신라 조각을 통해 언급한 관능미, Sim(2006)이 신라 토우를 통한 미의식의 특징으로 언급한 과격적 성애미, Kim(2008)이 향가에 나타난 아름다움으로 언급한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은 바로 염의 미와 통하며 향가에서 사용된 용

어인 염미에서 그 용어를 따와 염의 미를 신라의 미의 식으로 분류하였다.

신라의 건국 신화인 혁거세 신화에서 혁거세는 얼굴과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形儀端美] 부인이 되는 알영(閼英)은 얼굴과 모습이 뛰어난게 아름답다고[姿容殊麗] 묘사되어 있는데 얼굴과 모습은 어감상으로 구체적인 외모의 분위기나 생김새를 의미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있어 신라인들이 미의 내면적인 실체보다 외형적인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름다움’에 관한 용어가 등장하는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향가는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향가를 통해 신라인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II(1281/2008)의 ‘도화녀 비형랑(桃花女 鼻荊郎)’조는 신라 제25대 진지왕(眞智王)과 도화녀(桃花女)의 이야기이다. 사랑부(沙梁部)에 얼굴이 아름다운 도화녀가 살았는데, 왕이 그녀를 탐내었으나 도화녀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거절하여 도화녀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진지왕은 죽은 후 혼령의 상태에서 도화녀와 함께 지내 비형(鼻荊)이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로 그 연모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호색(好色)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진지왕의 마음을 빼앗은 도화녀는 여기에서 자용염미(姿容艷美)로 묘사되어 있는데 자용(姿容)은 외적인 용모나 모습과 자태 등을 의미하고 염미는 얼굴과 용모가 매우 아름다움을 뜻한다.

백제의 서동(薯童: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지었다는 민요 형식의 노래인 ‘서동요(薯童謠)’에서도 비슷한 미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원문 가운데 ‘선화 공주님은 남 볼래 성숙해 있다가 맛동

이 서방을 밤에 무턱/덥석 안을거다.’의 내용에서 선화 공주는 농염한 상태의 성숙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도화녀 비형랑’의 염미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궁궐 속에 고립되어 있던 선화 공주는 사람들에게 경탄의 대상으로서 추앙될 뿐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지닌 인물로 간주된다(Kim, 2008). 즉 도덕적·인격적 면을 지닌 동시에 호색적인 면을 지닌 주인공으로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와 비슷한 미의식은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景文大王)조에서도 등장한다. 국선(화랑도)이었던 응림이 현안대왕의 두 딸 중 한 명을 부인으로 맞게 되어 고민하는 장면에서 그는 얼굴이 못생긴 장녀(長女) 대신 매우 아름다운[甚美] 차녀에게 장가들기를 원한다. 그 당시 왕가의 결혼 관습상 장녀를 우선해야 하는데도 장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차녀와 결혼하기를 꿈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림은 결국 장녀에게 장가들라는 범교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장녀와 결혼하게 되는데 차녀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흠염(欽艷)하는 호색적인 면과 결국 범교사의 충고를 따르는 도덕적·인격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彌勒仙花未尸郎 眞慈師)조에도 염미가 등장하는데, 신라 제24대 진흥왕은 천성이 풍미(風味)가 있고 크게 신선(神仙)을 숭상하여 아름다운 자[美艷者]를 뽑아 원화(原花)를 삼았는데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大要)라고 화랑제도의 기원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왕이 풍류를 즐기고 신선사상(神仙思想)에 깊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을 미염자(美艷者)로 묘사하며 나라

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람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신라인들의 탐미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인의 시각적 신체미에 대한 몰입이나 연애적이고 호색적인 경향은 신라의 토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Fig. 14>-<Fig. 15>의 사랑을 나누는 남녀 토우들은 한국 전통 미술 가운데 가장 노골적이며 적나라하게 성을 표현한 파격적 성애(性愛)를 보여주는데 절제와 감춤의 미학에 익숙한 우리 전통 문화에서 신라의 이와 같은 대담한 성의 표현은 매우 파격적이다(Sim, 2006). 이러한 신라 토우의 사실적인 사랑의 표현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신라의 향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라인들의 연애적이고 호색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통일신라 불상 경주 감산사미륵보살상<Fig. 16>은 육감적인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부처의 숭고한 위엄에 옷의 주름이 몸에 밀착되어 관능미를 표현하며 신라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Fig. 17> 역시 관능미를 표현한다(Chong,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인들은 신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연애적이고 호색적인 취향이 강하며 관능적인 여성적 외모의 농염한 아름다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장식적 기교미

신라는 인도, 서역,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 미술과 다양한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토속적 감각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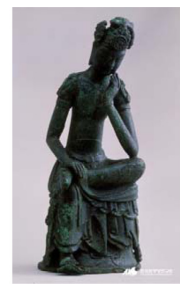
**Fig. 14. Couple Clay figurine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Gyeongju, 6C.**  
From The Museum of Everyday Life  
Compilation Committee.  
(2001). p. 61.



**Fig. 15. Couple Clay figurine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Gyeongju, 5-6C.**  
From Ahn.  
(2009). p. 62.



**Fig. 16. Standing Stone Buddha Statue, Gyeongju, 719.**  
From Standing Stone Buddha Statue. (2012).  
<http://www.museum.go.kr>



**Fig. 17. Gilt bronze Maitreya Pensive Bodhisattva, 719.**  
From Gilt bronze Maitreya Pensive Bodhisattva. (n.d.).  
<http://terms.naver.com>

국제적인 세련미를 갖추게 된다.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무작위적 자연미를 추구하는 신라인의 취향은 불교 미술의 전래와 활발한 문화 교류, 삼국 통일 등을 통해 국제적이며 권위적이고 관능적인 형태로 변화했으며 국제성과 다양성은 통일신라 미술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Chong, 2006).

장식이란 꾸밈을 의미하고 기교란 사전적으로 기술이나 솜씨가 아주 교묘한 것을 말하며 장식적 기교미란 그런 꾸밈의 기교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Chong(1998)의 유려한 장식, 평면성과 장식성, 국제적 미의식이 장식적 기교미와 통한다 할 수 있다.

신라인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염(艶)의 미의식은 감각적이고 유미(唯美)적인 꾸밈의 미의식인 장식적 기교미로 이어진다. 일본의 동양건축가이자 미술사학자인 세키노 타다시(관야정, 1867~1935)는 신라와 통일신라 예술의 미적 특성으로 ‘가장 세련된 고유의 취미’라 하였는데 신라는 토속적인 감각과 여러 나라들과의 활발한 교류, 불교의 유입을 통한 국제적인 감각의 미의식이 조화롭게 공존했으며(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2000) 신라의 금관 장식<Fig. 18>이나 금제허리띠<Fig. 19>, 금제이식<Fig. 20>, 천마도의 그림<Fig. 21> 등은 신라 고유의 자연적이고 토속적인 감각과 다른 장식적인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눈부신 황금의 나라’로 묘사된 신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황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매우 정교하게 꾸며진 금관, 금귀걸이, 금팔찌, 금제이식 등은 실용적 측면보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위세품으로 장식적인 기교가 돋보인다(Lee, 2005).

이러한 신라인들의 위세적이고 장식적인 미의식은 5~6세기에 과장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 시기 신라의 고

분<Fig. 22>은 고분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경주에 살던 사람들조차 무덤이 아닌 동산으로 인식할 정도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과장된 크기의 무덤이다. 과장된 크기의 거대한 규모의 고분에 맞게 금관과 장신구들은 더 화려하게 장식되고 토기는 <Fig. 23>과 같이 이전의 곡선적이고 단순한 취향에서 <Fig. 24>와 같이 직선적인 형태가 추가되어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며 장식적인 면모로 거듭난다.

신라 전통의 자연적 미의식은 장식적인 불교 미술의 전래를 통해 신라 고유의 감각과 정서와 전통이 새로움과 융합되어 보다 국제적인 보편성을 띤 미의식을 형성한다.

초기 불교에 영향을 받은 신라 미술은 친근하고 인간적인 성향을 띠는 점에서 신라 초기의 휴머니즘적인 특징과 유사하지만 6~7세기에 이르러서는 대중 속에 파고드는 친근한 이미지의 불상으로부터 형이상학적인 세계까지 표현하는 폭넓은 조형세계를 펼친다. 한국 예술 가운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작품 중 하나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Fig. 17>은 당(唐)의 불상이 외향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경향과 달리 정적이고 내면적인 사유의 정조가 느껴지며 품격이 느껴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예술의 극치라 일컬어지는 석굴암 석굴사원<Fig. 25>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서역과 중국을 거쳐 신라로 이어지면서 다듬어진 석굴사원문화의 결정으로 석굴암이 세계석굴사원 가운데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석굴암 석굴만큼 조각과 건축이 정교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다(Chong, 2001). 석굴암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조형원리 속에 입체성과 더불어 공간성을 창출하였으며 불상의 배치에 있어 좌우대칭을 이루고 이는 균형감과 안정감을 한층 강조하여 신라인들의 뛰어난 장식적 미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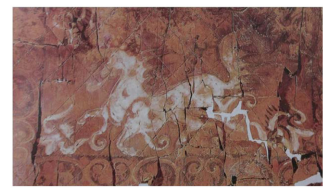
**Fig. 18. Gold Crown Ornament, Cheonmachong, Gyeongju, 5C.**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p. 86.



**Fig. 19. Gold Belt, Cheonmachong, Gyeongju, 6C.**  
From Gold Belt. (n.d.).  
<http://gyeongju.museum.go.kr>



**Fig. 20. Gold Earrings, Gyeongju, 6C.**  
From Ryu et al. (2008). p. 26.



**Fig. 21. Cheonmadojangni, Cheonmachong, 6C.**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p.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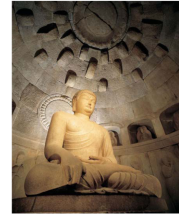
**Fig. 22. Hwangnamdaechong, Gyeongju, 5-6C.**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p. 72.



**Fig. 23. Earthenware jar, Gyeongju.**  
From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p. 85.



**Fig. 24. Longnecked Urn with Figurines, Tombs No. 30 in Gyerimro, Gyeongju, 5C.**  
From Ahn. (2009). p. 16.



**Fig. 25. Seokgulam, Gyeongju, 8C.**  
From Seokgulam. (2011). <http://terms.naver.com>

**Table 2. Aesthetic type of Silla**

Aesthetic ideology	Aesthetic characteristics	Expression
Natural beauty	natural characteristics without manipulation natural preference of beauty indifference of technical completeness random beauty, simplicity, plain beauty of the natural white	natural characteristic pureness, boldness freewheelingness no plan, indifference, no regulation random beauty infinite inherent beauty beauty of space simple beauty of decolorization
Humorous beauty	beauty of humor folk art	waveform buzz, joke, play poetical and romantic sapidity breaking and escaping unity departure from neatness breakaway beauty
Sensuous beauty	glamorous beauty concerning beauty coquette beauty grace	elegant simplicity amorous aspect sensible, sensual
Decorative technical beauty	decorative beauty spectacular beauty exaggerating beauty beauty of harmony	decoration, ornament beauty of curve beauty of straight line bilateral symmetry, proportion sense of balance sense of tranquility contemplation and chastity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의 미의식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III. 신라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전술된 신라의 유물 및 고서를 통해 나타난 신라 미의식 유형이 신라 복식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 1. 무작위적 자연미

신라 복식미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미의식의 근본은 자연사상이라 할 수 있다. <Fig. 26>의 부부상은 신라 복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토우의 제작 방식이나 형태 외에도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직선과 직사각형 형태의 천을 주름잡아 인체와 복식 사이의 여유로운 공간미를 특징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주름의 복식

표현에서 자연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신라 복식이 고구려와 유사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저고리의 입형은 고구려 복식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직령교입형으로 유추되며 치마 형태 역시 세로 선이 선각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치마에서 보이는 주름 형태 혹은 색동의 형태로 유추할 수 있다(Fig. 28). 또한 <Fig. 27> 역시 <Fig. 26>과 유사한 형태로 저고리의 정확한 형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치마의 형태는 A라인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직선적 실루엣에 주름 표현이 되어 있다.

《삼국사기》 제33권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옷을 장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의복에 사용된 재료로 새 깃털이나 곤충 날개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탈해왕조에는 ‘하루는 토해(탈해)가 동악(경주 토함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백의(白衣)를 시켜 마실 물을 떠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백의는 본래 흰 옷 입은 사람이란 뜻으로 벼슬이 없는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신라의 복색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백의, 즉 흰색의 옷을 입는 것이 고대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서(隋書)》의 “복색상소(服色常素)”, 《북사(北史)》의 “복색상화소(服色常畫素)”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복색으로 자연스러운 소(素)색을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금관이나 장신구에서 많이 보이는 곡옥의 형태<Fig. 29>는 태극의 모양이나 태아의 형태와 유사하며 생명의 시작을 상징한다. 금관총 금관<Fig. 30>이나 천마총 금관<Fig. 31> 등의 장신구를 보면 앞에는 하늘의 신과 통

하는 ‘하늘사다리’ 역할을 하는 우주목(宇宙木)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여 산(山)자 형이 겹친 입식을 세우고 나뭇가지 형태의 끝에 연봉오리 모양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뒤에는 하늘과 지상을 왕래할 수 있는 매신저 역할을 하는 사슴뿔을 원 형태에 가깝게 나타낸 입식을 세워 자연을 사랑하는 신라인의 미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인체와 의복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간을 형성하는 직선형의 A라인 형태의 치마와 곤충과 조류 등의 다양한 자연재료를 복식의 장식품으로 사용한 점, 곡옥, 나무, 새 등의 자연문양의 사용, 소(素)색의 선호 등은 당시 신라인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엿볼 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복식에 반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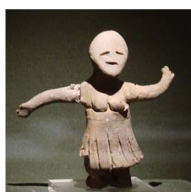
## 2. 해학미

익살, 풍자, 과장을 통해 웃고 싶은 감정을 유발하는 해학미는 신라의 이차돈 순교비<Fig. 32>에서 보이는 바지통을 과도하게 부풀린 과장된 바지 형태<Fig. 3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체에 입혀진 인체에 밀착된 착수의(窄袖衣)에 비해 하의는 과도하게 부풀린 바지의 극명한 대비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살과 풍자를 느끼게 한다.

또한 단석산 신선사의 공양자상<Fig. 34>에서도 역시 상체는 극도로 밀착된 착수의, 하체는 과도하게 부풀린 바지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익살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머리는 수직형의 모관이 과도하게 하늘을 향 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과장미가 느껴진다.



**Fig. 26. Couple Clay figurine, Hwangnam-dong, Gyeongju, 5-6C.**  
From Chae. (2012). p. 58.



**Fig. 27. Clay Doll, Hwangnam-dong, Gyeongju, 5-6C.**  
From S. H. Kim. (2009). p. 148.



**Fig. 28. A Noble Woman, Susan-ri Tomb Mural, Goguryeo, 6C.**  
From Chae. (2012). p. 140.



**Fig. 29. Curved jade, Jeju, 8-9C.**  
From Curved jade. (n.d.). <http://jeju.grandcultur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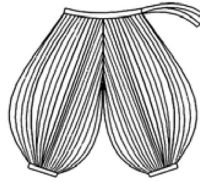
**Fig. 30. Gold Crown, Geumgwanchong, Gyeongju, 5C.**  
From Gold Crown, Geumgwanchong. (n.d.). <http://gyeongju.museum.go.kr>



**Fig. 31. Gold Crown, Cheonmachong, Gyeongju, Silla Period.**  
From Gold Crown, Cheonmachong. (n.d.). <http://gyeongju.museum.go.kr>



**Fig. 32. Monument to the Martyrdom of Yi Cha-don, Baengnyulsa Temple, Gyeongju, 818.**  
From Chae. (2012). p. 94.



**Fig. 33. Monument to the Martyrdom of Yi Cha-don. Schematization.**  
From Chae. (2012). p. 95.



**Fig. 34. Presenting an Offering to Buddha (drawing), Dansug Mountain, Gyeongju, 7C.**  
From Ryu et al. (2008). p. 23.



**Fig. 35. Clay figurine of a Woman,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Clay figurine of a Woman. (n.d.). <http://terms.naver.com>

저고리가 짧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마의 길이가 극명하게 길어지면서 서양의 신고전주의의 앵파이어 스타일을 연상하게 하는 통일신라 여인의 복식<Fig. 35> 역시 상의와 하의 길이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인체를 과장된 비율로 왜곡한 실루엣으로 역시 과장적 해학미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복식을 통한 극도로 과장된 극명한 대비는 고대 삼국 중 신라가 유일하다.

### 3. 염의 미

신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염의 미는 경주 황남동 출토 부부상의 여자 토우<Fig. 26>에서 나타나는데, 가슴을 드러내고, 밀착되고 노출된 상의를 통해 관능미를 느끼게 하며 왕회도 신라 사신<Fig. 36>의 긴 머리를 풀

어 늘어뜨린 모습 역시 관능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slim & long 실루엣<Fig. 37>에서 염의 미가 나타나며,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통일신라기 토용의 복식에서는 신라에서 볼 수 없던 관능적 취향이 나타나는데 신라의 둔부선의 저고리와 넓은 폭의 자연스러운 치마 형태는 신체의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통일신라 복식에서는 전체적인 옷의 실루엣이 하이웨이스트라인으로 몸에 더 밀착되어 몸의 곡선을 살린 slim & long 라인을 이루어 통일 이전의 신라에 비해 여성스럽고 우아한 형태의 관능적 취향으로 나아간 듯 보인다. 수줍은 듯 손을 가리고 웃고 있는 <Fig. 38>의 토용에서는 요염한 자태가 돋보인다. 신라의 염의 미는 통일 후 좀 더 관능적인 취향으로



**Fig. 36. Silla Envoy, Wanghido, 7C.**  
From Chae. (2012). p. 62.



**Fig. 37. Clay figurine of a Woman,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Ryu et al. (2008). p. 37.



**Fig. 38. Clay Figure of a Woman, Hwangseong-dong, Gyeongju, 7C.**  
From Ryu et al. (2008). p. 38.



**Fig. 39. Maitreya Bodhisattva from Gamsansa Temple Site, Gyeongju, 719.**  
From Maitreya Bodhisattva. (2012). <http://www.museum.go.kr>



**Fig. 40. Standing Buddha, Geumsan-gun, 8C.**  
From Standing Buddha. (n.d.). <http://terms.naver.com>

나아가는데 신라의 인간미 넘치던 불상은 통일신라기에 이르러 육감적인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여 얼굴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나 몸은 육감적으로 표현하여 긴장감 넘치고 생동감 있는 요염한 형태의 관능적인 형상을 갖춘다.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불상으로 통일신라 성덕왕 때 만들어진 감산사 아미타불상<Fig. 39>과 금산출토 금동여래입상<Fig. 40>이 있는데 이 부처는 숭고한 위엄에 주름진 옷이 몸에 밀착되어 관능미를 드러낸다.

#### 4. 장식적 기교미

삼국 통일 후 통일신라의 문화는 성숙하였으나 도덕이 해이해지고 복식의 장식이 다양해지고 복식제도가 문란해 상하존비(上下尊卑)를 막론하고 사치에 흐르고 예의에 벗어나 제42대 흥덕왕(興德王) 9년(834년)에 골품제도(骨品制度)하에서 신분을 나타내고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금령(禁令)이 내려졌다.

복식의 장식적 기교미는 《삼국사기》색복조의 복식금제(服飾禁制)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복식금제령은 신분에 따른 엄격한 복식의 구분 및 사치를 금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통일신라의 복식제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복식금제에는 20여종의 복식금제와 착용규정이 계급별, 남녀별로 복식의 직물, 문양, 장식, 색채 등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꾸밈의 장식적 요소는 복식 종류 및 문양, 색상 등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복식의 명칭은 유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내상(內裳)·표상(表裳)

·반비(半臂)·배당(褙襠)·표(裋: 목수건)·요대(腰帶: 허리띠)·요반(褙襴: 허리끈)·말(襪: 버선)·말요(襪襪: 버선목)·화대(靴帶) 등으로 다양한 복식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박·은박이나 금사·은사의 사용을 금하였다는 기록, 금·은의 국내 수요가 많았다는 기록이나 당에 수출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복이 금박·은박이나 금사·은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복식에 응용된 장식은 흔히 자수나 그림 그리기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신라 시대 복식금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옷을 장식했음을 알 수 있는데 새의 털을 옷감과 함께 짜서 직물 속에 넣어 사용하기도 하였고 새의 깃털을 어교(魚膠)로 장식물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비단벌레의 껍질날개를 하나씩 떼어 십자형으로 붉은 색 라(羅)에 달고 중앙에 영락(瑩瑤)장식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 복식의 장식적 기교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Kim, 2005).

통일신라 복식은 복장이 다양화되어 기본 상의인 단의와 내의, 하의인 치마 위에 겹옷인 표의와 높은 신분에서는 표를 들렀으며 반비와 배당과 같은 반수의 형태의 겹옷도 착용되었다. 치마는 걸치마인 표상과 속치마인 내상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착용하였으며 내상은 5, 6두푼녀들은 사치스럽게 착용하였고 4두푼 이하 평민녀는 장식 없이 착용하였다. 이러한 표상과 내상의 치마의 이중착용은 공양천인상<Fig. 41>과 주악천인상<Fig. 42>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Kwon, 2001). 표는 지금의 술과 같이 어깨 등에 걸쳐 입는 형태로, 거의 1폭의 길고 부



**Fig. 41. Gongyang-cheoninsang, Gyeongju, 8C.**  
From Gongyang-cheoninsang. (n.d.).  
<http://terms.naver.com>



**Fig. 42. Juak-cheoninsang, Gyeongju, 8C.**  
From Kwon. (2001). p. 230.



**Fig. 43. Clay Figure of a Woman,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Ryu et al. (2008). p. 37.



**Fig. 44. Gidanseok.**  
From Kwon. (2001). p. 232.



**Fig. 45. Silla Envoy, Fresco of Janghoe Crown Prince, Lee Hyun's Tomb, 654-684.**  
From Silla Envoy, Fresco of Janghoe Crown Prince, Lee Hyun's Tomb. (2012).  
<http://www.culturecontent.com>

드러운 옷감으로 몸에 자유로이 걸치는 것으로 4두품 이상의 여자들만 착용이 가능했다(The National folk museum, 1995). 왕비의 표는 금·은사나 실크로드의 여러 지역에서 수입한 청호반새 깃털이나 공작새 깃털로 수놓아 장식할 정도로 호화로웠다(Ryu et al., 2008). <Fig. 43>의 표를 두른 여인상은 출토된 여인상 가운데 가장 크고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등 뒤 표현된 솔 형태는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진 두 가닥이 치마 가장자리까지 이른다. 통일신라기 짧아진 저고리에 표를 걸쳐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비(半臂)와 배당(褙襦)은 4두품 이상의 여자에게만 착용된 복식으로 반비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착용된 반면 배당은 여성에게만 착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비와 배당은 소매가 없거나[無袖] 소매가 짧은 옷[短袖衣]일 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 뚜렷한 형태적 구분을 짓지는 못하고 있다(Kwon, 2001). <Fig. 44>의 경북 상주시 기단석 묘에 새겨진 여인상에서는 반수의의 착용이 보이는데, 무릎 위 길이로 허리에 대를 묶고 있으며 밑단에 주름의 란(襴) 장식이 보인다. 이러한 밑단의 란 장식은 공양천인상<Fig. 41>과 당의 장회퇴자이현묘의 벽화에서 보이는 신라국사<Fig. 45>의 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신라 복식의 장식적 기교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장식적인 보관, 대좌를 덮은 옷자락과 옷의 주름은 매우 규칙적이고 정교하며 매우 완벽한 비례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 복식의 장식적 기교미는 주로 통일신라 복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복식착용과 소재의 사용, 란 장식, 위세품적 장신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 신라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에는 자연미, 해학미와 같은 토속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통일신라로 가면서 염의 미, 장식적 기교미와 같은 국제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신라인은 강한 토속문화의 기반 위에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신라의 예술이 천년동안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질박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와 영험한 조형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 전통을 고수했다(Chong, 2006). 긴 세월동안 신라는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미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

으며 이러한 전통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라 유물, 문학, 사서 기록을 통해 유추한 신라의 미의식은 무작위적 자연미, 해학미, 염의 미, 장식적 기교미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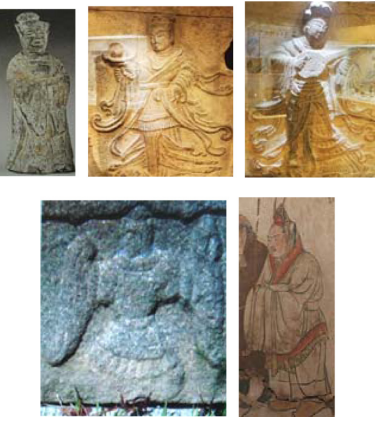
무작위적 자연미는 신라의 유물 및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적이고 토속적이며 질박한 표현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됨을 중요시한 신라인들의 자유로운 기풍의 휴머니즘적인 미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학미는 신라 토우를 비롯한 여러 유물,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익살스러움에서 느껴지는 흥겹고 즐거운 해학이 가득하다. 연애적이고 호색한 취향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중성을 갖는 염의 미는 신라 토우의 사실적인 사랑의 표현과 향가와 같은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신라인들의 탐미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염의 미는 장식적인 불교 미술의 전래를 통해 장식적 기교미로 이어지는데 신라 고유의 감각과 정서와 전통이 새로움과 융합되어 보다 국제적인 보편성을 띤 미의식을 형성한다.

2. 1) 신라 복식에 나타난 무작위적 자연미는 복식에 있어 자연스러운 선의 사용과 여유로운 공간미, 자연문양의 사용, 백색의 선호 등으로 나타난다. 2) 해학미는 바지통을 과도하게 부풀린 과장된 형태, 상하의의 극명한 대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염의 미는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slim & long 실루엣에서 나타나며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밀착된 복식실루엣으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4) 장식적 기교미는 다양한 복식구성, 주름잡힌 정교한 가선 장식, 겹쳐 입는 치마의 중첩성, 위세품적 장신구, 다양한 소재 사용 등에서 그 섬세한 기교미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 예술 전반에 나타난 미의식의 특징이 그 복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으로써 신라 초기, 자연적 미감을 바탕으로 한 신라 고유의 무작위적 진실된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진정성의 미학이 통일신라기로 가면서 관능적이고 장식적인 미감의 꾸밈의 미의식으로 전환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작위적 진정성과 작위적 기교성이 혼재하는 상반된 미의식과 함께 해학미에서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양극화된 대비적 미감이 나타나 고대 삼국 중 가장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복식의 미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앞으로 좀 더 깊이

Table 3. Aesthetic type of Silla Dynasty Costume

Aesthetic Consciousness	Relics	Features
Natural bea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reading jeogori</li> <li>- beauty of space</li> <li>- beauty of straight line</li> </ul>
Humorous bea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 exaggerated form of pants</li> </ul>
Sensuous bea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lim &amp; long silhouette</li> <li>- diameter inflated excessively launching</li> <li>- slim fitting pants</li> <li>- type of close to body</li> </ul>
Decorative technical bea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othes composition and diversity of materials and ornaments</li> <li>- double wearing of skirts</li> <li>- ran ornament</li> </ul>

있는 시대마다의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hn, K. S. (2009). *Silla clay figurines, dream of eternity*.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An Editorial Department. (2006). *Handbook Gyeongju*. Seoul: Tongcheon Munhwasa.
-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2000). *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Silla art's foreign negotiations]. Seoul: Yekyong.
- Chae, K. S. (2004a). Decoration culture resident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3), 113–127.
- Chae, K. S. (2004b).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8), 129–146.
- Chae, K. S. (2012). *Korean traditional clothes & Korean style for globalization*. Paju: Jigu Culture.
- Chong, P. M. (1998). *신라조각의 미의식*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sculpture]. *관광학논총*, 2, 235–254.
- Chong, P. M. (2001).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Art is a beautiful life form]. Seoul: Dahal Books.
- Chong, P. M. (2006). *신라미술의 미의식*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art]. *慶州文化研究*, 8, 97–119.

- Clay figurine of a Woman. (n.d.). *Naver*.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07&docId=1632463&categoryId=3057>
- Curved jade. (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0179](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0179)
- Duck-Shaped Kettle.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_view.html?GotoPage=3&num=31](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_view.html?GotoPage=3&num=31)
- Earthenware jar. (n.d.). *Naver*.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33&docId=550823&mobile&categoryId=1633>
- Earthenware with clay icons.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4&num=241](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4&num=241)
- Gilt bronze Maitreya Pensive Bodhi-sattva. (n.d.). *Naver*.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33&docId=550823&mobile&categoryId=1633>
- Gold Belt.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_view.html?GotoPage=2&num=59](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_view.html?GotoPage=2&num=59)
- Gold Crown, Cheonmachong.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1&num=4](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1&num=4)[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_view.html?GotoPage=1&num=55](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_view.html?GotoPage=1&num=55)
- Gold Crown, Geumgwanchong.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1&num=214](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1&num=214)
- Gongyangcheoninsang. (n.d.). *Naver*.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33&docId=573803&mobile&categoryId=1633>
- Heo, G. (2010). *전통문양* [Traditional patterns]. Seoul: Daewonsa.
- Il, Y. (2008). *삼국유사* [Samgukyusa]. (W. J. Kim, Trans.). Seoul: Mine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281)
- Jotap-dong Pagoda. (n.d.). *Naver*.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30&docId=579684&mobile&categoryId=1630#relatedImage1>
- Kim, H. A. (2009). A study on ceramics formative application of Shilla's decoative clay dolls on vessels.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0(4), 41–49.
- Kim, H. J. (2008). Beauty and an aesthetic consciousness of Sil-La as Hyangga creative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 15, 265–301.
- Kim, I. K. (199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3), 536–547.
- Kim, J. H. (2009). *A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aesthetic point of view inherent i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H. (2009). *신라 토우 속의 음악과 춤* [Music and dance in the Silla's clay figurine]. Seoul: Minsokwon.
- Kim, S. K. (2004). The characteristics of pattern design in Hanbok fashion fabric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7(2), 71–80.
- Kim, Y. J. (2005). *신라 복식 특성 연구*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Shilla's costume]. *Socie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Conference*, 56–60.
- Kwon, J. H. (2001). *A study of Shilla's costume tran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H. S. (2005). *황금의 나라 신라* [The golden arts of Silla]. Paju: Gimmyoung Publishers.
- Maitreya Bodhisattva. (2012).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www.museum.go.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1005001&boardTypeID=114&boardCategorySelect3=1&mmode=search&boardID=17030>
- Min, J. S. (1988). Some remarks on the ancient Korean aesthetic thoughts.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13(1), 3–25.
- Ogawa, M. (1999). *일본 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Aesthetic philosophy of Japanese classics] (H. H. Kim, Trans.). Seoul: Hanrimsinseo.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Roof-End Tile.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8&num=118](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8&num=118)
- Roof-end Tile with Human Face. (n.d.). *Gyeongju National Museum*.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4&num=265](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101_view.html?GotoPage=4&num=265)
- Ryu, H. K., Kim, M. J., Cho, H. S., Park, M. Y., Shin, H. S., Kim, Y. J., & Choi, E. S. (2008). *우리 옷 이천년* (개정판)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fashion (2nd ed.)]. Seoul: Misul Munhwa.
- Seokgulam. (2011). *Naver*.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77&docId=1582256&categoryId=3077>
- Silla Envoy, Fresco of Janghoe Crown Prince, Lee Hyun's Tomb. (2012). *Culturecontent*.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5&cp\\_code=cp0213&index\\_id=cp02130227&content\\_id=cp02130227001&search\\_left\\_menu=](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5&cp_code=cp0213&index_id=cp02130227&content_id=cp02130227001&search_left_menu=)
- Sim, Y. O. (2006). A study on the symbolism and formative character of the clay doll of Silla dynasty. *동양예술*, 11, 115–137.
- Standing Buddha. (n.d.). *Naver*. Retrieved May 30, 2013, <http://>

- terms.naver.com/entry.nhn?cid=348&docId=1631341&mobile&categoryId=1386
- Standing Stone Buddha Statue. (n.d.). *National Museum of Korea*. Retrieved May 30, 2013, from <http://www.museum.go.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1005001&boardTypeID=114&boardCategorySelect3=1&mmode=search&boardID=17030>
- The Museum of Everyday Life Compilation Committee. (2001). *한국생활사박물관 5 (신라생활관)* [The museum of everyday life 5, Living in the millennium kingdom]. Paju: Sakyejul.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5). *한국복식 2천년* [Two thousands years of Korean costumes]. Seoul: Shin Yu.
- Yoon, B. Y. (2001). *(A) Study on the traditional aesthetic consciousness reflected on the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comparative research for Korea and Jap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